

소쉬르 기호학 서설

김 성 도

소쉬르 언어학에 대한 엄청난 연구 실적에 비해서 소쉬르 기호학과 관련된 치밀한 연구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¹⁾ 논자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자의 역량을 감안할 때 그 작업에 착수할 채비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만, 하나의 가설로서, 소쉬르 사상의 중심부에 그의 기호학주의가 놓일 수 있다는 안을 몇 편의 줄고에서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쉬르 기호학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제기하는 폭에서 논지를 구성해보았다.

소쉬르 기호학의 온전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

1) 그나마 소쉬르학의 최고 권위자인 앵글러 교수와 분델리 교수의 다음 논문들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우어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Rudolf Engler, "Sémiologies saussuriennes 1. De l'existence du signe," *CFS* 29, 1974~1975, pp. 45~73; Rudolf Engler, "Sémiologies saussuriennes 2. Le canevas," *CFS* 34, 1980, pp. 3~16; Peter Wunderli, "Umfang und Inhalt des semiologiebegriffs bei Saussure," *CFS* 30, 1976, pp. 33~68.

세 가지 방향에서의 연구가 상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소쉬르 기호 이론이 나타나는 텍스트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문헌 고증 및 비평을 시도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쉬르 기호학의 전체적인 이론적 구도를 잡고 수미일관된 이론적 해석을 가하는 일이다. 이 같은 해석학적 작업에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은 언어학과 기호학의 관계 규명을 비롯해, 언어 기호와 일반 기호의 존재론적 속성들의 차이와 유사점을 밝혀내고 특히, 소쉬르 기호학의 인식론적 기능을 포착하는 일이다. 또한 소쉬르의 아나그램 및 신화론 관련 글들이 갖는 의미도 기호학적 관점에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작업은 서구 기호학사의 패러다임 차원에서 소쉬르 기호학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양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소쉬르 기호학의 철학적 계보를 추적해보는 일이며, 이때 관건은 전통적인 기호 사상과의 연속성 및 단절의 이원적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퍼스 기호학과와의 인식론적 대질 작업은 긴요한 과제로 부상한다.²⁾ 다른 하나는 소쉬르 기호학의 전개 발전을 조망하여, 소쉬르 기호학주의가 현대 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립해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호 이론 영역, 즉 엘름슬레우 기호학을 시발점으로 그레마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구조주의 기호학은 물론, 소쉬르 기호학의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 바르트의 텍스트 기호학과 데리다의 해체주의도 연구 목록에 들어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적고 보니, 소쉬르 기호학을 단 한 편의 논문으로 담아내기란 애초부터 지극히 무리한 시도로 판명된다. 따라서 이 소논문에서 우리는 기호학 관련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2) Cf. Gérard Deledalle, *Théorie et pratique du signe*, Payot, 1979; Gerhard Vigener, *Die zeichentheoretischen Entwürfe von F. de Saussure und Ch. S. Petrice als Grundlagen einer linguistischen Pragmatik*,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79.

이론적 기본틀을 짜는 차원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다.

1. 소쉬르 기호학의 발생

소쉬르 기호학의 발생 시기 및 전체적인 구상화 과정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진술을 가능케 하는 증거 문헌은 부재한다. 단지, 그의 저작물에 흩어져 있는 언급들을 분석해서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소쉬르의 기호학적 성찰의 흔적이 남겨진 텍스트는 크게 다섯 무리로 나눌 수 있다.

1) 1901년 소쉬르의 사촌동생인 나빌 A. Naville이 간행한 당시의 학문 분류 체계를 다룬 『과학의 새로운 분류 *Nouvelle classification des sciences*』에 소개된 기호학의 정의.³⁾

2) 1916년 유고집으로 나온 『일반 언어학 강의』 통속본 *la Vulgate* 대부분의 기호학자들이 인용한 것은 통속본의 소쉬르에 한정된다.

3) 고텔과 앵글러가 발굴한 소쉬르의 자필 수고 및 수강생들의 원고.⁴⁾

4) 아발레 A. Valle를 비롯한 이탈리아 학자들이 발굴한 신화 관련 수고 중의 일부.⁵⁾

3) Adrien Naville, *Nouvelle classification des sciences, étude philosophique*, 2^{ème} éd. entièrement refondue, Paris: Alcan, 1901.

4) Robert Godel,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Paris: Droz/Minard, 1957;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Rudolf Engler(éd.), Wiesbaden: Harrassowitz, 1967~1968.

5) D'arco Silvio A. Valle, "La sémiologie de la narrativité chez Saussure," in *Essai de la*

5) 하버드 대학의 휴턴 도서관 Houghton Library에 소장된 소쉬르 수고 중 음운론 *phonologie* 관련 수고 중 일부.⁶⁾

이 다섯 텍스트군에서 1) 3) 4)에 국한하여 직접적으로 기호학 *sémiologie*이란 술어 혹은 시그놀로지 *signologie*, 기호과학 *science des signes*과 관련된 단락들만을 다루어본다(보다 완결된 연구를 위해서는 기호와 관련된 일체의 술어들, 기호 *signe*, 쉼 *sème*, 아포쉴 *apôsème*, 콩트르쉴 *contre-sème* 등등에 대한 개념 정리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 작업은 제외하기로 한다⁷⁾).

‘세미올로지 *Sémiologie*’란 술어의 최초 사용은 1894년 소쉬르가 휘트니 W. D. Whitney 추모 논문집에 게재할 계획으로 작성한 노트 속에서도(물론, 소쉬르는 이 노트의 출판을 포기한다. 이 술어는 스타투스 *Status*와 모투스 *Motus*에 대한 자필 노트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이탤 *Item*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기호 관련 술어들 쉼 *sème*, 아포쉴 *apôsème*, 파라쉴 *parasème*만이 나올 뿐이다. cf. R. Godel, *SM*, pp. 48, 142; Engler, *Edition critique*, tome 2, fasc. 4, p. 27). 이 노트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이런 명목에서 언어학은 직접적으로 심리학 속에 들어가고, 심리학으

théorie du texte, Ch. Bouazis(éd.), Paris: Galilée, 1973, pp. 17~49; Aldo Luigi Prosdocimi, “Sul Saussure delle leggende germaniche,” *CFS* 37, 1983, pp. 35~106.

6) Roman Jakobson, “Saussure’s Unpublished Reflections on phonemes,” *CFS* 26, 1969, pp. 5~14; Herman Parret, “Les manuscrits Saussure de Harvard,” *CFS* 47, 1994, pp. 179~234.

7) Cf. Rudolf Engler, *Lexique de la terminologie saussurienne*, Utrecht and Antwerp, Specturum. 1968.

로부터 그 빛을 기다릴 것인가? 그런데, 심리학은 하나의 기호학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만약 심리학이 그 같은 하나의 기호학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학이 알지 못할 랑그의 현상들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가 기호학적 토대로서의 랑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바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N 12, p. 10[Engler, *EC* II, p. 27])

세미올로지 개념은 따라서 1900년 이전에 잉태되었음이 틀림없다. 1901년 나빌의 책에 삽입된, 소쉬르가 직접 집필하고 나빌이 옮긴 총 3개의 단락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다.

소쉬르 교수는 그가 기호학이라고 부르는 매우 일반적인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그 대상은 기호들의 의미의 창조 및 변형 법칙이 될 것이다. 기호학은 사회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기호 체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들의 계약적 언어라는 점에서 가장 앞선 기호과학은 언어 생명의 법칙을 다루는 언어학이 될 것이다. 음성학과 형태론은 특히 낱말들을 취급하고, 의미론은 낱말들의 의미를 다룬다.⁸⁾

8) "M. Ferdinand de Saussure insiste sur l'importance d'une science très générale qu'il appelle sémiologie et dont l'objet seraient les lois de la création et de la transformation des signes et de leurs sens. La sémiologie est une partie essentielle de la sociologie. Comme le plus important des systèmes de signes c'est le langage conventionnel des hommes, la science sémiologique la plus avancée c'est la linguistique ou science des lois de la vie du langage. La phonologie et la morphologie traitent surtout des mots, la sémantique du sens des mots. Mais il y a certainement action réciproque des mots sur leur sens et du sens sur les mots; vouloir séparer ces études l'une de l'autre ce serait mal comprendre leurs objets. Les linguistes actuels ont renoncé aux explications purement biologiques (physiologiques) en phonologie, et considèrent avec raison que la linguistique est, ou du moins tend à devenir de plus en plus, une science de lois; elle se distingue toujours plus nettement de l'histoire du langage et de la grammaire."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를 통해서 옮기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당시까지 기호학이란 주제에 대해서 소쉬르가 강의에서나 공간된 논문에서 전혀 언급을 남기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 그는 기호학은 자신이 혼자서 시험적으로 제안한 새로운 연구 영역임을 은연중에 노출한다. 더구나 소쉬르는 자신이 기호학이란 신학문의 최초의 창안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기호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기호 사상의 선구자나 그것의 사상적 근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재미있는 사실은 이 텍스트의 운명이다. 나빌의 이 책은 모두 세 가지의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상이하다. 제1판은 1888년에 나왔으며 여기서는 기호학은 물론 언어학 항목도 나타나지 않는다. 1901년 판본에 비로소 세미올로지가 나타나며 사회학 *sociologie*이 간단하게 언급된다.

심리학에 있어서는 허용된 가정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사회적 생명이란 개념은 사회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 사회학은 사회에서의 의식적 존재들——특히 인간들——의 생명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회적 생명의 표상을 가능케 하는 모든 조건들을 데이터로 인정해야 한다. (p. 103)⁹⁾

Adrien Naville, *Nouvelle classification des sciences, étude philosophique*, 2^{ème} éd. entièrement refondue, Paris: Alcan, 1901, Tableaux pp. 179~81. Mauro 역시 이 단락을 인용하고 있다(CLG/D, 1972, p. 352).

- 9) "L'idée de la vie sociale qui, pour la psychologie, n'est qu'une des suppositions permises, devient une donnée pour la sociologie. La sociologie est la science des lois de la vie des êtres conscients -spécialement des hommes, - en société. Elle doit admettre comme données toutes les conditions sans lesquelles nous ne pouvons pas nous représenter la vie sociale. Quelles sont ces conditions? Je ne sais si la science les a déjà suffisamment distinguées et énumérées" (p. 103).

그리고 기호의 존재 및 제약과 교환 등에 대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압축된 단락들이 나온다.

가장 명백한 것 중의 하나는 기호들의 존재이며, 기호들을 통해서 연상된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들의 감정 및 사고, 의지 등을 전달한다.

Une des plus apparentes, c'est l'existence de signes par lesquels les êtres associés se font connaître les uns aux autres leurs sentiments, leurs pensées, leurs volontés. (p. 103)

1920년의 세번째 판본에는 소쉬르란 인명은 물론 Sémiologie란 항목도 완전히 사라진다. 반면에 Sociologie가 다섯 영역(구속·협조·교환·증여·강탈)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뒤르켐 Durkheim과 왈라스 Walras가 언급된다. 언어학은 단지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될 뿐이다.¹⁰⁾ 『일반 언어학 강의』가 1916년 나왔고, 분명히 이 책에서 소쉬르는 나빌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1920년에 어떤 이유에서 나빌은 소쉬르와 기호학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곧, 당시 나빌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기호학이 전혀 비전이 없는, 일종의 소쉬르 일인의 상상물로 간주했다는 증거다. 결국, 소쉬르의 죽음과 더불어 기호학은 영원히 망각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본다면, 소쉬르

10) "La création d'une langue dans le cours des siècles est aussi le résultat d'une collaboration communautaire. Une des tâches de la linguistique, est de formuler les lois de cette collaboration. Dans la collaboration individualiste au contraire, le résultat est partagé, au moins partiellement, entre les collaborateurs" (p. 151).

가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호학을 구상한 시기는 최소한 그의 파리 시절(1880~1890)까지로 소급될 수 있다. 1894년 최초로 사용된 *sémiologie*란 단어는 1907년~1911년까지 진행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의 노트에서 시그놀로지 *signologie*란 말로 교체된다(정확히 제2차 강의 시기인 1908~1909). 소쉬르는 강의 당시 쓴 그의 자필 수고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시그놀로지 *signologie*라는 표현은 그것의 조어법상 슬어론 *terminologie*, 사회학 *sociologie*, 광물학 *minéralogie* 등을 비롯 라틴어에 *logie*를 접합한 다른 낱말들에 비해서 더 거슬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signologie*란 낱말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전에 *sémiologie*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바로 이 *sémiologie*란 이름으로 나빌 교수는 『과학의 새로운 분류』에서 처음으로 이 과학이 정식 과학 분야 중의 하나로 수용되는 명예를 안겨주었다. (N 24a(Engler, EC II, p. 48))

그러나 학생들 노트에는 오직 *sémiologie*란 단어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구두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이 용어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쉬르 기호학의 성립

우리가 상투적으로 인용하는 기호학 정의는 『일반 언어학 강의』의 33면에 나오는 정의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호학 정의는 그것 자체로는 그다지 독창적인 구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기호학의 설립 이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세인트 오거스틴 Saint-Augustine을 거쳐 로크에 이르기까지 기호학 패러다임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서구 사상사의 유구한

전통을 이루고 있다.¹¹⁾ 따라서 소쉬르의 독창성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쉬르 기호학의 인식론적 역할과 소쉬르의 이론소들이 짜여지는 틀 속에서 발휘하는 기호학적 원칙에서 드러난다. 앞서 지적했듯이 소쉬르에게 있어 기호학은 이미 1890년대부터 잉태되었고 단지 강의를 통해서 선언되었을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에게 있어 랑그는 영속적인 이원성을 보여 주며 한 측면은 반드시 다른 한 측면을 통해서만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느 한쪽을 추상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총체성을 간파해야 한다. 즉 하나의 개념적 과학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랑그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종합적인 노선을 밟아야 한다. 소쉬르의 이분법들은 랑그의 기호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쉬르의 이분법은 하나의 총합을 이루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강조했듯이 종합적 노선을 선택하여 이분법들을 함께 고찰하는 일이 관건이다. 이 같은 연역적 방법론에 의해 부과된 최초의 결단은 바로 랑그는 하나의 기호 체계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기호의 생성 및 법칙을 밝혀줄 수 있는 기호과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쉬르가 기호학을 정의하는 곳은 바로 언어학의 소속 문제를 논하는 자필 노트에서이다. 소쉬르는 무엇보다 언어가 기호 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따라서 언어 기호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기호학 속에 놓는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언어학이 자연과학 차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역사과

11) Cf. Eschbach Achim et Trabandt Jurgen (éds.), *History of semio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3; Alain Rey, *Théories du signe et du sens I et II*, Paris: Editions Klincksieck, 1973, 1976; Parret Herman, "La sémiotique comme projet paradigmatique dans l'Histoire de la philosophie," in *Eschbach et Trabandt*, 1983, pp. 371~86.

학에 속하느냐를 갖고 토론을 했다. 언어학은 그 둘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지금은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기호학 *sémiologie*이란 이름 아래 존재하게 될 과학들의 하나에 속한다. 즉 기호들의 과학, 혹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필요한 계약을 수단으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N 24a(Engler, EC, pp.47, 48))

이것이 바로 *sémiologie*의 출현 배경이다. 따라서 이 같은 소쉬르의 준칙을 받아들인다면, 언어학과 기호학은 숙명적으로 상호공존의 관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언어가 기호 체계라는 점에서 언어학은 다른 사회적 제도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보다 상위의 학문인 기호학에 포함된다.

기호들 일반의 변형 법칙들은 언어의 변형과 유추 관계를 가질 것이다. 바로 이 기호학적 무리를 우리는 가장 큰 제도들의 무리 속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D 8(Engler, EC, p.49))

그리고 그것은 심리학의 한 분과인 사회심리학에 속하게 된다고 소쉬르는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얼핏 상충되는 두 개의 진술을 접한다. 먼저 원자료에서 소쉬르는 이렇게 적고 있다. “기호 체계들의 심리학이 생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기호 체계들의 토대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심리학은 사회심리학의 일부분일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적일 뿐이다. 랑그에 적용되는 심리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Ⅲ C 17). 더구나 앞서 인용한 나빌의 책에는 기호학을 사회학에 할애된 단락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랑그가 갖는 두 가지 성격, 즉 사회성과 심리성을 인식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기호는 사회적이며 동시에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두뇌 속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이다. 이것은 곧 기호학은 이 양 측면의 조화로운 변증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¹²⁾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다. 소쉬르 기호학의 창조는 랑그와 언어학을 병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적 계통 분류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소쉬르의 기호학적 관점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오랜 시간의 존재론적 성찰의 궁극적 절정에서 나왔으며 소쉬르 이론소들의 체계화를 마련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심화의 귀결이다.¹³⁾

실제로 기호학의 위치를 설정한 후 소쉬르는 그것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원칙들을 소묘했다. 그리고 랑그를 기호학의 중앙에 놓았다는 점에서 소쉬르 언어학은 기호학의 기본 주춧돌을 마련하려 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소쉬르 언어 이론의 주요 이분법 공리들은 단지 언어학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호학적 본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소쉬르가 말하는 언어 직능 *faculté du langage*도 단지 언어 구사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일체의 기호학적 발현, 즉 세미오시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다.

뇌의 한 부분의 마비가 언어 능력을 해치면, 전기호 구사 능력 *signologie* (= *faculté sémiologique*)이 영향을 받는다. (N 21(3330), p. 4 [EC, p. 36])

이 점에 있어서 익히 알려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는 우

12) René Amacker, *Linguistique saussurienne*, Genève: Librairie Droz, 1975.

13) 소쉬르 기호학의 인식론 및 메타 이론적 의미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자는 이탈리아의 시모네 교수라고 사료된다. Simone Raffaele, "Introduzione al 2° corso di linguistica generale (1908~1909)" ("Introduction" de la traduction italienne), Rome: Ubaldini Editore, 1970, pp. 7~21; Simone Raffaele, "'Montrer au linguiste ce qu'il fait,'" in De Mauro et alii. (éd.), *Studi saussureani per R. Godel*, Roma: Bulzoni, 1974, pp. 243~62.

를 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첫째, 언어 직능은 절대적으로 두뇌 속에 위치하며, 둘째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상해(傷害)는 대부분 문자 활동의 무능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공간은 일종의 블랙박스로서 이곳을 통해 우리는 계약적 관계를 지각한다(N 10[3297], p. 18[EC, p. 36]).

3. 소쉬르 기호학의 외연

소쉬르 기호학의 문헌학적 검토 및 이론적 정의에 이어 과학으로서의 기호학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계제다. 소쉬르 기호학의 개념적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이 이 단락의 목표다. 소쉬르는 먼저 기호학의 외연을 기술하기 위해 기호학의 연구 대상 부류들을 열거하고 있다.

랑그는 관념들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이며 바로 그 점에서 문자, 수화 알파벳, 상징적 의식들, 예의 범절, 군사용 신호들 등과 견주어질 수 있다. 랑그는 단지 이 체계들 중 가장 중요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생활 속에서의 기호들의 생명을 연구하는 일반 과학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심리학의 일부분을 형성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 심리학의 한 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호학이라고(그리스어의 *sèmeion*, (*signe*)) 명명할 것이다. (CLG, p. 33)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소쉬르가 기호학의 대상 목록을 ‘등등’이란 말을 씌으로써 개방시켜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몇 가지 예증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기호의 개념적 속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리들링거의 제2차 강의록은 이 점에서 보다 신축성을 보여준다.

랑그가 기호들이 형성한 모든 종류의 체계를 포괄하지 못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언어학보다 더 넓은 기호 체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해양 신호, 맹인들의 점자, 농아의 수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자 그 자체!). (II R 12(EC, p.46))

기호학은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것을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과학의 영역은 계속해서 언제나 더욱더 팽창할 것이다. (II R 17(EC, pp.46, 47))

통속본과는 달리 원자료에는 상징적 의식과 군사 신호가 리스트에 누락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3차 강의록에는 예절 인사는 목록에서 빠져 있다. 1894년에 쓴 자필 노트에는 기호학의 또 다른 연구 대상 부류로서 암호 해독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는 기호 이론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언어는 이미 단순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 놓인다. 더구나 기호의 일반 이론 속에서 음성 기호라는 특수한 경우는, 문자, 암호 해독 등과 같은 이미 알려진 특수한 경우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아니다. (N 10, p.38a(EC, p.169))

여기서도 목록체는 폐쇄되지 않았고, 기호학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소수의 분량이지만 하지만 게르만 전설 신화 등에 대한 소쉬르의 노트는 이미 프로프의 러시아 형식주의에 앞서서 문학 영역을 기호학의 범주에 넣으려 했음이 명백하다. 한 단락만 인용해본다.

——전설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의미에서’ 일련의 상징들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징들은, 자신들이 그 점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다른 모든 상징들, 예컨대 언어의 낱말들과 같은 상징들과 동일한 영고성쇄와 법칙들에 종속된다.

—그것들은 모두 기호학의 부분을 이룬다. (Ms. fr. 3958-4, p. 1)

이 같은 기호학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소쉬르는 고정된 하나의 틀을 결정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속본에서 본 기호학의 예들이 모두 공리적(功利的)인 대상들인 반면에 소쉬르는 이 노트에서 신화와 전설의 담론을 기호학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미학적인 체계들의 기호학화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소쉬르는 기호학의 대상 요건으로서 기호의 자의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제어 장치라기보다는 기호학의 대상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갈라놓는 여과적 기능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쉬르는 판토마임이 기호학적 체계로 가능한가를 자문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장에서 제시된 기호의 분류 목록에 국한시켜 소쉬르 기호학의 외연을 규정짓고 그 한계성을 현대 기호학의 영역과 대조하여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소쉬르가 시각기호학 및 조형기호학·음악기호학과 동물기호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소쉬르가 예로 들고 있는 해양 깃발 등은 우회적으로 시각기호학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 군사용 트럼펫 신호는 청각기호학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쉬르 기호학의 외연적 경계 설정만으로도 현대 기호학의 전영역의 가능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호학의 외연을 설정한 후 소쉬르는 기호학의 임무를 각각의 기호 체계의 차이의 정도를 밝히는 일로 제시한다. 이것은 곧 기

호의 존재론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전초 작업에 해당할 것이며, 이때 소쉬르의 항구적 고심은 다른 기호 체계들과 언어 기호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일이었다.

기호학의 임무는 그 차이들을 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호들은 총체적으로 자의적인 반면, 몇몇 예의 범절 동작에서는 자의적인 성격을 떠나 상징에 접근할 것이다. 모든 형식, ‘모든 의식, 모든’ 관습들은 기호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II R 17(*EC*, p. 154))

여기서 제기된 기호 체계들의 차이 기준은 자의성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자의성의 정도에 있어 언어는 기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호학의 한 부분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아울러 언어는 다른 사회 제도들과 비교해서 사용 공간 범위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 제도들 가운데서 여러모로 구분된다. 언어를 법률적·의식적 제도들과 접근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몇몇 순간에 몇몇 개인들에게만 관련될 뿐이다. 언어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모두에게 인도되지 않는다. (ID 7(*EC*, p. 45))

한편, 자필 수고를 보면 문자가 랑그 다음으로 기호학 체계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점에 있어 소쉬르가 문자를 하대하고 소리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데리다의 소쉬르 비판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문자에서 우리는 언어와 유사한 기호 체계 속에 놓인다. 그것의 주요 특징들은 이렇다: 기호의 자의성 ‘기호와 지칭할 사물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기호의 순전히 네거티브하고 시차적 가치: ‘기호는 그것의 가치를 오직 차이들을 통해서만 이끌어올 뿐’이다. (Ⅱ R 13/14[EC, pp. 269~70])

이 밖에도 기호학적 관점에서 문자에 대한 언급은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며, 모두 문자가 기호학의 원리에 부합됨을 예시하고 있다.

4. 소쉬르 기호의 존재론적 속성

소쉬르가 기호학을 “기호들의 과학 *science des signes*” (EC, 277: Ⅱ R 12; EC 283: Ⅱ R 12; B 7 et Ⅱ C 11) 혹은 “기호들의 일반 이론 *théorie générale des signes*” (N 16)으로 정의할 때, 그는 체계의 항목으로서 혹은 요소로서 기호를 지칭한다. 즉 파롤 속에서 실현된 기호가 아닌 랑그 체계의 항목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호학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소쉬르가 기호학의 자의적 기호들의 체계에로의 적용 영역을 한계그을 때 제공되고 있음을 앞서 보았다. 그리고 이때 그는 기호학적 전망에서 체계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새로운 영역의 탄생은 곧장 그것의 적용 범위의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소쉬르 이후, 어떤 이는 동일한 형식적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현상들만이 기호학에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진영의 사람들은 이 같은 속성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들의 총체를 그 대상으로 본다. 첫번째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기호학자는 엘름슬레우이며 그의 주저 『언어 이론 서설』은 기호학의 인식론을 세련된 언어로 구축한다.¹⁴⁾ 그

14) Cf. Louis Hjelmslev,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Madison: The

러나 그의 형식적 정의는 기호 이론의 논리적 엄밀성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입장이거나 의미 작용의 광활한 세계를 포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소쉬르 자신의 입장은 보다 신축적이고 조심스럽다. 그에 따르면 기호학은 “그것의 영역이 한계지어지는 것을 위해서만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CFS 15, p.19)라고 적고 있으며 의미 작용의 경험을 통해 점증적으로 정의될 과학이라고 보고 있다.

기호의 속성들의 정의는 그의 일반 언어학 관련 노트에서 형식적 구성을 거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하나로 꿰는 일은 해석자의 임무이다. 논자는 가설적인 차원에서 기호의 속성과 관련해서 소쉬르가 제기한 진술 중에서 모두 12가지의 속성을 재구성해보았다(단, 여기서 적는 속성들은 언어 기호와 비언어 기호의 엄밀한 경계 구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 1) 기호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signifiant quelque chose*(EC 280: II R 17). 방브니스트의 술어를 빌려 쓰자면 유의미성 *signifiante*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 2) 기호는 이원적이다. 기호에는 상호 종속적인 이원적 속성들이 내재한다. 이것을 일러 소쉬르는 기호의 조응성 *correspondance* 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 3) 기호는 비개성적 *sont impersonnelles*이다(*ibid.*). 즉 랑그에 속해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pp. 107~14.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엘름슬레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기호학적 구조들의 총체성 안에서 언어에 할당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 둘째, 기호적인 것과 비기호적인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두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다음과 같다. 즉 그에 따르면, 기호학적 구조의 본질적 속성은 게임의 구조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일 구조의 변형 체계이다. “If we wish to investigate the boundary between semiotic and non-semiotic, it is a priori an all but obvious conclusion that games lie close to that boundary, or perhaps on the boundary itself” (p. 110).

야 하며 초개인적이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기호의 궁극적 사회성 혹은 제도성을 의미한다.¹⁵⁾

4) 개인에 의해서 혹은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고 영속적으로 그들을 벗어나 존재한다(*ibid.*). 따라서 언어는 개인이나 사회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없다.

대부분의 제도들은 몇몇 순간에 다시 취하여 교정될 수 있고 의지의 행동에 따라 개혁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언어에는 이 같은 행동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아카데미도 칙령을 수단으로 언어라는 제도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III C 16(*EC*, p.45))

즉 기호는 의지에서 나오는 반성적·의식적 행동에 의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개인적·사회적 의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것을 논자는 기호가 갖는 의지적 변경으로부터의 초월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5) 기호는 숙명적으로 시간 속에서 운동한다. 즉 기호의 영속적 운동성을 말한다.

절대적 부동성의 예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시간 속에서 언어의 운동이다. 그 운동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또 속도의 완급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그 운동은 숙명적이다. (N 23, 1(*EC*, pp.318~19))

15) "vain de considérer le système hors du caractère collectif (dès qu'il entre dans la vie sémiologique, il devient le bien d'une communauté); c'est uniquement le fait social qui crée ce qui existe dans un système sémiologique; suffisant d'apprécier système vis-à-vis de la collectivité; partie reconnue comme produit social seule, créée par fait social seul, dans système, reconnue comme sémiologique; passe par dessus les individus. se perpétue hors d'eux."

6) 기호는 전달 및 양도가 가능하다. 이것은 기호의 양도 가능성 *transmissibilité*에 해당한다. 즉 기호는 계약적 본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체의 일치이자 계약으로서 집단적 타성에 뿌리를 둔다.

기호 이론에다 기호의 새로운 측면을 일러주고 제시했다는 것, 그것은 기호 이론에 대한 언어 연구의 핵심적인 반응이 될 것이며 언어 연구가 열어놓은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즉 기호가 실제로 인지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양도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될 운명의 본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터득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N 16(*EC*, p. 169))

7) 기호는 유통 혹은 전파한다. 이것은 기호의 유통성 *circulation*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기호의 유통성의 문제는 일반 언어학 강의 통속본에서는 단지 인공 언어와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어 그 의미가 희석되어 있다.

‘인공 언어’를 창안한 사람은 그것이 유통되지 않는 한,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통제에서 벗어난다. 에스페란토어는 이런 유의 시도이다. 만약, 이 언어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언어의 숙명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첫 순간이 지나면 그 언어는 십중팔구 기호학적 생명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언어는 심사숙고된 창조의 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칙에 따라서 전달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런 흐름을 역행할 수 없을 것이다. (*EC*, p. 169)

에스페란토를 언급하면서 소쉬르는 언어의 숙명적 진화를 증빙하는 보충적인 이유를 첨가한다. 언어의 진화 이유는 단지 언어

기호의 자의성 원칙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공동체에서 유통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같은 언어의 유통성을 일러 소쉬르는 “기호학적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화 관련 노트에서도 기호의 유통성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하나의 상징의 정체성은 그것이 상징인 순간부터, 즉 매순간 그 가치를 정하는 사회적 무리 속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결코 고정될 수 없다. 이렇듯, 툰 문자 Y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것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Y라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Z라고 읽히지며 알파벳의 8번째 철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적으로 잔 zann이라고 불려진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 그것은 알파벳의 10번째 철자가 된다. [……]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그 물음의 철학적 파급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넉넉한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다. 마치 그것이 흥미진진한 것인 양. 말인즉, 오직 모든 상징은 한번 사회 속에 뿌려지면, 어떤 상징도 다음 순간에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이 될지는 전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상징은 그것이 유통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MS.fr. 3958/4)

이 속성들에다 소쉬르가 언어 기호에 대해 언급하는 속성들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 속성들에 대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가령, “근본적인 특징들”(EC 1120: D 185 et III C 278), “근간이 되는 특징들” “근본적 진리들” “일차적 진리” 등.

이 속성들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짜여진다.

8) 기호는 자의적이다. 기호학은 “자의적으로 고정된 *arbitrairement fixable* 가치를 연구하는 과학이다”(EC 1324: N 23, 6).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다. 기호의 자의성으로부터 다음 세 가지의 하위 범주의 속성들이 파생한다.

9) 모든 자의적 기호는 부정적 혹은 차이적 가치를 갖는다(*EC* 1932: Ⅱ R 13). 이것을 우리는 기호의 네거티브적 차이성이라고 부른다.

10) 모든 자의적 기호는 규정된 체계 속에서 대립적 가치를 갖는다(*EC* 1933: B 8). 이것은 기호 체계의 대립성을 말한다.

11) 기호의 생산 수단은 무관하다(*EC* 1936: Ⅱ R 14). 이것을 우리는 기호 생산 수단의 무상관성이라고 명명한다.

12) 청각적 부분인 기호의 시니피앙은 하나의 공간 길이를 표상하고 이 길이는 오직 하나의 차원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시니피앙의 선조성에 해당한다. 소쉬르는 단일 공간성 *unispatialité*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속성들의 총합은 언어 기호의 본질을 정의한다. 하지만 소쉬르는 수차에 걸쳐 상기한 모든 속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호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예컨대, “시각 기호들 *signes visuels*”은 “여러 차원에서 복잡성을 가져오며”(*EC* 1170: D 191), 바로 이 점에서 시니피앙의 선조성의 조건에 위배된다. 더구나 소쉬르는 이 같은 속성들의 목록마저도 고정된 공리나 원칙이 아닌 가변적이며 신축성 있는 경계축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공리라고도, 원칙이란 말도, 테제란 말도 쓰지 말자. 그것들은 단지 순수한 어원적 의미에서 아포리즘과 경계 설정들에 불과하다. — 즉 진리가 연속적으로 다시 놓여 있는 한계점들이며 우리는 그 경계점에서 출발한다.

Ne parlons ni d'axiomes, ni de principes, ni de thèses. Ces sont simplement et au pur sens étymologique des aphorismes, des délimitations — des limites entre lesquelles se retrouve constamment la vérité, d'où

l'on parte. (EC 3328.5, fasc.4, p.42)

예컨대, 그는 자필 노트에서 기호의 영역은 모든 가시적 물질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Item. 나는 산책을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나무 위에 흠구멍을 하나 새겨본다. 그저 심심풀이로 말이다. 나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흠자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는다. 그는 이 순간 이 흠자국에 두세 개의 관념들을 연상시키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저 그 흠자국을 장난삼아 속이거나 그저 즐기기 위한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호이다: 즉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연상시키는 인상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언어 기호의 유일한 특수성은 다른 것보다 더 정밀한 연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계약적 기표 *sôme*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념들의 연상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식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EC, 3320.4, fasc.4, p.40)

이렇게 보면 기호학적 해석의 전영역이 새로운 지평으로 개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언어 기호인 랑그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이다. 언어 기호와 비언어 기호의 총체적 상동화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호학의 상이한 영역들에 속하는 기호들을 상동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은 곧 상이한 기호 체계들 사이에는 절대적 동위성 *isomorphisme*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 체계인 랑그는 기호 체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경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적고 있다 (EC 282: D 182; EC 290: II R 12). 더구나 소쉬르는 상이한 기호 체계들 사이에서 그것들의 심리학 차원에서도, 진화 차원에서도 완벽한 동일성을 찾아서는 안 될 것

임을 예언하고 있다(EC 284: II R 16).

이 같은 비교를 세부 디테일까지 더 몰고 나가서 다른 기호 체계들 ‘문자가 아닌 다른 기호 체계들; 심지어 해양 신호 체계’와 언어 체계 사이의 유추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차원의 사실들 속에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완벽한 동일성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쉬르 제자들의 강의록을 보더라도, 그가 기호의 항구적인 속성들의 규명에 집착했다거나 기호들과 그 체계들의 대상들을 규정하는 것을 필수불가결한 작업으로 고려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대 기호학의 추세가 기호의 정의를 최소한의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앞서 언급한 12가지의 존재론적 속성들을 최소 모델로 다시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소쉬르와 문학

이미 앞서서 우리는 소쉬르가 일반 언어학 노트에서 기호학의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호 체계들을 열거하면서, 신화·모티프·인물 등과 같은 문학 기호들의 체계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음을 보았다. 더구나 언어 기호의 최소 단위인 낱말을 넘는 담론 차원에 대한 암시도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기호 개념이, 기본적인 언어학 단위인 단어를 초월하는 항목들로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고델을 비롯해서 그레마스 역시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 가령, 고델은 소쉬르 언어학에서 기호란 술어는 단어를 비롯해, 명사통합체, 문장들 일체의 언어학적 실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소쉬르의 노트 역시 이 점을 상기한다.

언어 규칙 속에서 우리는 고립된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의 무리를 통해서, 조직화된 덩어리를 통해서 말을 하며, 이 묶임들 자체가 기호들이다. (EC 2058, 2019)

비록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언술의 기본 단위인, 서사물 *récit*의 구성체인 문장에 대한 소쉬르의 성찰은 랑그의 지평에서 다시 출현한다. 소쉬르 언어 이론에서 문장은 체계의 구조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의 질서는 통사적 양식의 계약적 모델에 종속한다. 즉 문장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호의 본질과 체계의 본질에 참여한다. 이 문제는 단지 소쉬르 언어 이론 차원을 넘어 기호학적 관점을 수용하는 일체의 문학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이다. 잘라 말해, 기호학의 토대인 기호와 체계 개념 등 일반적 모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문학기호학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계점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반 언어학은 물론 강의에서 다루어진 기호학의 대상에서 문학적 기호 체계들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그러나 논자의 생각으로 그것은 순전히 우연에 불과할 뿐이다. 소쉬르의 지성사를 추적해볼 때 문학은 그의 지속적인 관심 분야였으며(그는 프랑스 시학 및 작시법과 독일 문헌학과 문학사를 강의한 바 있다), 언어 세계와 문화 세계의 불가분의 관계는 그가 일찍부터 깨달은 진리였다. 1894년 그의 애제자인 메이에에게 보내는 서간문에서 소쉬르는 언어 일반의 문제보다는 인종학적·문화적 문제들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문제라고 적고 있다. 일반 언어학 강의를 만들어놓은 소쉬르의 이미지는 따라서 소쉬르 사상의 진면목을 굴절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종학적 문학은 그의 학술적 관심 분야의 핵심부에 있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언어의 생생한 *pittoresque* 측면, 즉 몇몇 기원들을 갖는 어떤 민족에 속하는 바대로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되는 면, 바로 이 같은 거의 인종학적 측면이야말로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Ms, fr, 3957-6)

바로 이 점에서 소쉬르의 게르만 신화 전설에 대한 노트는 인종학적 문화기호학의 가능성에 보여준 소쉬르의 관심을 증빙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러시아 민담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 프로프 Vladimir Ja Propp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프로프와 마찬가지로 소쉬르는 전설적 혹은 신화적 서사물들의 역사적 뿌리의 문제 및 그것의 통시적 진화 및 형태론의 문제들을 집요하게 탐구하였다.

이 두 대가는 모두 이야기 속에서 행동 양식의 기능들의 유형 및 구조적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서술적 양식의 통시적 변화를 형식적 기호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결론부에서 양자는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소쉬르의 텍스트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락들은 언어 기호 체계인 랑그와 문학 기호 체계인 전설 및 신화의 형식적 유추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 텍스트들 속에서 소쉬르는 전설의 추적 가능성을 두고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소쉬르는 통시대적 시각에서 신화의 정체성 파악이 불가능함을 피력한다.

언어의 한 상태와, 300년 혹은 400년의 거리를 두고 이어질 다른 언어 상태 사이에는 ‘그것들의 변형에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을 차지하고라도’ 최소한 고정된 것이 있다. 구두 기호들의 물질적 형식이 그것이다. 그것은 수십 세기를 거쳐도 고정된 도식에 따라서만 변형을 수용할 뿐이다. (음운론)

하나의 전설 상태와 300년, 400년의 거리를 두고 올 전설의 상태 사이에는 반대로 고정된 그 어떤 요소도 없다. (Ms, fr. 3959-11)

소쉬르는 더 나아가 기호의 일체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기호가 단지 몇 가지 특질들의 순간적인 조합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주지하다시피, 요컨대 확실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무능력은 시간 *temps*의 효과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그것은 기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눈여겨볼 만한 오류이다——그 같은 무능력은 사람들이 미리 하나의 유기체로서 관찰하는 존재의 성립에서부터 놓여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두세 가지 관념의 사라져가는 조합을 통해서 얻어진 유령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것은 [……] 규정의 문제이다.’ 어떤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같은 단일성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한 순간의 혼합에 부여한 공식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오직 요소들만이 존재한다. (Ms, fr. 3958-8, p. 42)

그렇다면 소쉬르의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또 한 편의 흥미진진한 연구 테마가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조교수]

참 고 문 헌

Amacker, René, *Linguistique saussurienne*, Genève: Librairie Droz, 1975.

Avalle, D'Arco Silvio, "La sémiologie de la narrativité chez Saussure," in *Essai de la théorie du texte*, Ch. Bouazis (éd.), Paris: Galilée, 1973a, pp. 17~49.

- Avalle, *L'ontologia del segno Saussure*, Turin: Giapichelli, 1973b.
- Deledalle, Gérard, *Théorie et pratique du signe*, Paris: Payot, 1979.
- Engler, Rudolf, "Sémiologies saussuriennes 1. De l'existence du signe," *CFS* 29, 1974~1975, pp. 45~73.
- , "Sémiologies saussuriennes 2. Le canevas," *CFS* 34, 1980, pp. 3~16.
- Gadet, Françoise, *Saussure une science de la langue*, Paris: P.U.F., 1987.
- Godel, Robert,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Paris: Droz/Minard, 1957.
- Jakobson, Roman, "Saussure's Unpublished Reflections on phonemes," *CFS* 26, 1969, pp. 5~14.
- Kim Sungdo, "La mythologie saussurienne: une nouvelle vision sémiologique?" *Semiotica* 97-1/2, 1993, pp. 5~78.
- Naville, Adrien, *Nouvelle classification des sciences, étude philosophique*, 2^{me} éd. entièrement refondue, Paris: Alcan, 1901.
- Parret, Herman, "Les manuscrits Saussure de Harvard," *CFS* 47, 1994, pp. 179~234.
- Prosdoci, Aldo Luigi, "Sul Saussure delle leggende germaniche," *CFS* 37, 1983, pp. 35~106.
-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Rudolf Engler (éd.), Wiesbaden: Harrassowitz, 1967~1968.
- , *Les mots sous les mots: Les anagrammes de F. de Saussure*, J. Starobinski (éd.), Paris: Gallimard, 1971.
- ,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 De Mauro (éd.), Paris: Payot, 1972.
- Simone, Raffaele, "Introduzione al 2e corso di linguistica generale (1908~1909)" ("Introduction" de la traduction italienne), Rome: Ubaldini Editore, 1970, pp. 7~21.

- , “Montrer au linguiste ce qu’il fait,” in De Mauro et alii. (éd.),
Studi saussureani per R. Godel, Roma: Bulzoni, 1974,
pp. 243~62.
- Wunderli, Peter, *Ferdinand de Saussure und die Anagramme*,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72.
- , “Umfang und Inhalt des semiologiebegriffs bei Saussure,” *CFS*
30, 1976, pp. 33~68.